

어 린 이 훈 육

Discipline for Children

주 정 일 (서울대·사법대학)

Chungil Choo · Seoul National Univ.

훈육이라 하면 흔히 우리 머리에 떠 오르는 개념이 있으니 그것은 곧 어린이의 잘못을 벌하는 뜻의 개념이다. 학교에서도 훈육주입이라 하면 잘못하는 학생의 징계를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제주의 교육 이념하에 있어서의 개념이라 볼 수 있고 적어도 민주적 교육이념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이 훈육의 개념을 좀 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양을가 한다.

훈육은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Discipline)이 되겠는데, 이 말을 오해는 구미 각국에서도 한번 되짚어 보고 있는 듯하다. 즉 어린이에게로만 향하던 훈육을 어른에게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경향이 있



【글 쓴 이】

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어른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린이를 이끌어 가고 혼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어린이를 이해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른들이 어떻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행동해야 하겠는가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이 있는 뒤에 꾸짖고 나무라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는 경향이 농후해진 것 같다. 예를 들면, 잉크병을 잃지 않거나, 응집실의 고려자기를 깨뜨린 어린이를 어떻게 징계할 것이며 선생을 때린 학생을 퇴학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하여 잉크병이나 고려자기가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체지간에 정당게 될 수 있는가를 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운운해 보자는 것이다.

어린이를 받아 드리자

우선 급선무는 어린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드린다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 세계를 이해하자는 것이다. 어른은 눈으로 보기만 하면 만족한 물건들을——꽃이든 고려자기든——어린이는 손으로 만져 보아야만 속이 시원하다. 꽃잎파리를 발기 발기 찢어보고 먹어보고 고려자기도 안팎으로 만져보고 던져보고 하므로써만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고 호기심을 만족시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각 보다는 촉각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경험이 적어서 직각적으로 물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어린이 손에 들어가서 곤란할 만한 귀중한 물건은 될수록 어린이 손 달는데 두지를 말 것이다.

어린이들은 걷기 보다 뛰기를 좋아하고 앉아서 노는것 보다 뛰어 놀기를 좋아하고 높은데 기어오르기를 그리고 뛰어내리기를 좋아한다. 겨우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이는 천천히 걷는 것 보다 빨리 빨리 발을 내 디딤으로서 몸의 균형을 잡기가 더욱 쉬운 고로 가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뛰어가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린이들은 끊어 오르는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또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라도 항상 파격하게 놀게 된다. 이것을 억지로 방안에서 조용히 놀게 하려면 상당

한 무리가 생기기 쉽다. 오히려 미끄럼이든 그대를 마련해 주고 사과케잍이라도 던져놓고 기어올랐다 뛰어내렸다 할 수 있게 해주면 아마도 방안의 책상이나 응접실의 의자위에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린이들은 또 어지러 농기를 좋아하고 치우기를 싫어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가지 많은 장난감을 다 내 준다든지 하지 말고 몇가지만 가지고 놀게 하다가 그것이 실증이 날 무렵에는 다른 장난감을 주고 먼저 것은 감추어 버린다든지 또 치울 때는 어린아이 일수록 어른이 조금씩 도와주어 가며 또 치우는 일도 하나의 놀이처럼 꾸며서 한다든지 하여 어려서부터 좋은 습성이 길러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어린이들은 불결한 것을 잘 가릴 줄 모르고 며들기를 잘 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주의적이고 파괴적이고 반항적이고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하는 과정의 단계인 고로 우리 어린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의 어린이도 그렇고 또 우리 성인들 자신도 어려서는 그러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어른들이 양보할 때 훈육문제는 훨씬 가벼워 진다. 어린이들은 결국 나이 먹어 갈수록 어른의 행동을 모방하여 어렸을 때의 버릇에서 벗어나게 된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어린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웬만한 일은 어린이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관대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사랑은 훈육의 기반

부모의 정성 어린 돌봄을 많이 받은 어린이 일수록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에게 협조적인 어린이가 되는 법이다. 영아기에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별로 불만없이 자란 어린이들은 그만큼 마음이 평온하고 매사에 잘 적응하고 말도 잘 듣게 마련이다. 더구나 어린이라 할지라도 인격적 대우를 받고 좋은 아이라고 주위에서 인정해 줄 때는 어린이 자신이 이러한 신임을 잃지 않겠음 정말 좋은 어린이가 되려고 노력하는 법이다. 반대로 아주 나쁜 어린이로 낙인이 찍히든지 또는 부모네들이 무관심 하든지 하면 좋은 어린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마음이 삐뜨러진 불평스러운 어린이가 될 것이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어린이들은 반항적이 되고, 지나치게 공갈하면 겁쟁이가 되고, 무관심하면 불안해지고, 졸르기 잘 하는 어린이가 될 것이니 요는 바람직한 훈육의 바탕은 부모들이 적극적인 사랑의 분위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가 무서워 할 때는 보호해 주고 도움이 필요 할 때는 도와주고 배고파 할 때는 먹을 것을 주고 함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이지만 과연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할 여지가 많고 우리 각자 반성할 바도 많을 줄 믿는다. 어린이가 어른과 같이 놀고 싶어 할 때 같이 놀아주고 재미 있는 일에는 같이 쾌활하게 웃어 주고 할 수 있는 부모, 언제나

어린이에게 자신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행복하게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밀반침해 줄 수 있는 부모는 모르는 결에 벌써 어린이 훈육의 바탕을 튼튼히 조성한 부모라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어린이 생일 파티도 계획해 보고 공휴일의 가족야유회도 실시해 보고 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은 부모들과의 조화있는 재미난 생활을 맛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적극적인 훈육이라 말 할 수 있으며, 덮어놓고 일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맹종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훈육방침은 성공하기 힘들 뿐더러 오히려 반항적이고 심술궂은 어린이를 만들게 될 뿐일 것이다.

부모의 생활태도도 중요

훈육의 바탕으로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즉 부모들 자신의 생활태도라 하겠다.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즉 상호적응이 잘 된 사람들이라면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자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마음이 평안해서 역시 잘 적응된 어린이로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자아내는 가정분위기 그 자체가 협조적이고 조화적일 때에는 그 안에 사는 아이들 역시 협조적인 어린이가 될 것이니 훈육의 문제는 훨씬 경감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부모들이 서로 적응하지 못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가운데에서는 어린이들의 불안감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연 가정에 대한 애착이 없어져서 자꾸만 관심이 밖으로 나아가고 좋지않은 동무들의 유혹도 받기 쉽고 하여, 가지 가지 문제를 자아낼 것이며 부모에게 걱정거리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성인들은 자녀들을 봐서라도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가정분위기를 만들도록 음으로 양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가꾸고 옷도 정결하게 입고 하면 아이들도 자연 물들어서 청소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며 부모들이 물건을 애써쓰고 파손된 것을 즉시 수리하고 일한 뒤는 깨끗이 치우고 하는 모범을 보여 줄 것 같으면 아이들 또한 말로 잔소리 안해도 자연 그 본을 받아서 책장 하나라도 떠러지면 부쳐 달라하고 장난감도 고장나면 그냥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남녀노소 계급 종족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나 인간적으로 대하고 하다못해 문전에 찾아오는 거지한테라도 하대치 않고 친절하게 하며 동정하는 눈초리로 대할 때 우리 어린이들은 여기에서 모든 인간을 다 같이 존중히 여기는 기본적 태도를 배우게 될 것이니 결국 우리는“아버이는 어린이의 거울”이라는 말을 항상 명심하고 어린이들에게 요구하는 정서와 생활태도를 그대로 우리가 먼저 스스로 지니고 살므로 산 표본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어린이들의 훈육문제는 거의 제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훈육은 한결 같이

부모들은 왕왕 자기 감정이 지배하는 대로 어린이에게 대하기가 쉽다. 어린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도 자기 기분이 좋으면 못 본체 하고 자기가 저기 압일 때는 신경질적으로 때리고 나무래고 하는 수가 있다. 어린이가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겼을 때 한번은 몹시 야단치고 다음 번에는 관대하게 대하고 하면 어린이들은 옳고 그른 일에 대한 판단력이 잘 안 생길 뿐더러 어머니 눈치 봐 가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수가 있다. 만일 여름철에 아이스케키를 안 사주기로 했으면 여하한 경우에도 안 사주는 신념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몹시 더우니까 한번만 사준다든지 손님이 사주신 것이니까 할 수 없다든지 하고 어머니가 동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심지어는 일등을 했으니까 한번만 사준다든지 하면 더욱 모순이 커진다. 일등한 보상으로서는 나올 수 있는 물건이라면 상당히 가치있는 훌륭한 물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집안의 어른들의 훈육방침이 다 일치하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아버지는 심환 주어 내 보내는 것을 절대 반대 하는데, 어머니는 우는 아이 달래는 유일한 방법으로 심환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이러한 이중적인 규범하에서 어린이들이 진·선·미를 습득하기란 매우 곤란 할 것이다. 또 할머니가 몰래 몰래 아이스케키를 사주시므로써 아이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든지 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집안의 어른들이 다 같이 협력하여 같은 방침과 방향으로 훈육을 지향할 때 어린이들은

비로서 안정감을 느끼고 정말 참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질책보다 칭찬을

어른들도 나무람을 듣는 것 보다는 칭찬을 듣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거늘 하물며 어린이들은 언제나 지 잘랐고, 지 잘하고, 기 적하다고 해야 좋아함은 더 말 할 나위도 없다. 어린이들이 잘못을 저지른 뒤에 나무래서 교정하려고 애쓰느니 보다는 잘못이 일어나기 전에 조심 시키고 또 잘 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칭찬을 애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한층 지꿨고 심술궂은 어린이 일수록 조금이라도 잘 한 일을 발견해서 그때마다 칭찬해 주고 착한 일을 자꾸 하겠끔 고무해 주면 훨씬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잘한 일은 당연하게 보고 찬사도 안 던져주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몹시 나무래든지 하면 아이들은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진취적인 썩 썩한 어린이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항간에는 성선설(性善說)이니 성악설(性惡說)이니 하여 어린이의 천성을 운운해 보려는 기색이 있으나 우리는 역시 성선설을 믿고 어린이들을 뒷받침 해 주므로써 성취하는 바가 크리라 믿는다.

약속을 잘 지키자

우리 성인들은 어린이에게는 어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면서 어른들은 가끔 약속을 이행치 않고도 상대방이 어린이니까 상관 없다는 듯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본다. 상대방이 어른이

건 아이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한 인권모욕이다. 어른들은 왕왕 어린이에게 무리한 요청을 하고 싶거나 좀 급한 경우에는 그대신 나중에 무엇을 사주겠다든지 어디를 데리고 가겠다든지 하는 등의 약속을 아주 손쉽게 가볍게 하고는 또 그 약속을 깨뜨리기도 너무나 가볍게 깨뜨리는 수가 많다. 몇번 속다가 보면 아이들은 어른을 못 믿게 되어 다음 약속이나 양보는 여간해서 안하려고 한다. 부모에게 대한 완전한 불신임이다. 이쯤 되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라든가 협조성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어린이들은 차츰 의심꾸러기가 되고 심술궂게 되고 비협조적이 될 것이니 훈육은 마구 짓밟히고 만다. 비록 작은 약속일지라도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든지 또는 소홀히 여기고 깨뜨리고 마는 사람은 이러한 사소한 일이 어린이 양육에 직접 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망각한 사람의 행동이라 하겠다.

경험을 풍부하게

적극적인 훈육의 일면으로서 어린이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국한되고 매마른 환경에서는 어린이들은 마음이 응졸하고 속상하는 일이 많겠지만 경험의 분야를 널리 확대해서 항상 새롭고 신기로운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마음이 호젓하고 활기에 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짜증이 나는 대신에 신바람이 나고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의 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는 장난감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반드시 값비싼 장난감만이 가치있는 장난감은 아니다. 흙이니 물이니 세사니 나무토막이니하는 자연물등이 어린이의 상상력과 더불어 가지각색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고, 소박하고 간단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상상력 창조력을 도와 줄 수 있는 장난감들이 있다. 집짓기 그림맞추기 텀카토이(일명 공작세계)등이 그 예다. 그리고 역시 큰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나 그네니 미끄럼이니 하는 것도 다 좋다. 가정에 시설해 주기 어려운 것은 때때로 공공유원지나 유치원등의 신세를 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은 비단 그가 제공하는 시설의 가치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존재의 의의가 크다. 특히 형제자매가 없는 아이, 수집은 아이 등에게는 매우 좋은 기관이다. 형제자매가 많으면 구태어 유치원에 안 보내드래도 집 안에다 경제가 허락하는 한도내의 것을 갖추고 어린이들의 풍부한 놀이를 자극할 수도 있으며, 또한 가끔 야외로 소풍도 데리고 가고 때로는 백화점·시장등을 구경시켜 주는 것도 사회공부의 일면을 제공하는 셈이다. 또 그림책이나 이야기책을 통해서도 간접경험을 넓혀주고 상상력을 길러 줄 수도 있다. 기회가 있으면 시골 아이는 서울에, 서울 아이는 시골에도 데리고 가고 해변가에도 가 보고 하는 것은 모다 경험의 확대에 플라스 해 주는 일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하여 세상을 널리 보고 아는 것이 늘고 생활이 재미나고 하면 아이들은 자연 적

응성이 커지고 협조적인 아이가 되어 혼육에도 플라스 될 것이라 믿는다.

발달과정을 이해하자

어린이는 생후 반년쯤은 그의 생리적 요구만 주로 채워주면 큰 말썽은 없지만 이육고 기어다니게 되고 주위의 여러가지 사물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어른은 혼육문제에 골치를 앓게 된다. 어떻게 하여 위험한 곳에 못 가게 하나, 귀중품을 못 만지게 하나, 좀 조용히 앉아서 노는 습성을 길러 줄 수 있나, 생각하게 되고 좀 커지면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아이를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로 만들 수 있는가, 거짓말 안 하고 협력적이고 순종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을가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문제가 된다. 여기서 요는 어린이들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하겠음 내버려 두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이란 반드시 부모가 원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어린이마다 개성에 따라 그 속도도 방향도 다른 법이다. 물론 일반적인 발달의 경향과 원칙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즉 어린이들은 똥이 지나면 모든 일을 내가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얹혀다니는 대신 내 발로 걸어보고 싶고, 음식도 받아먹는 대신 내가 숟갈을 들고 퍼먹어 보고 싶고, 조금 커지면 신발도 혼자 신고, 옷도 혼자 입고, 무거운 것도 날려 보고 싶은 법이다. 이런 때는 모든 일에

「내가……」 「내가……」하고 주장하고 고집을 세우게 되는데 부모들은 자칫하면 어린이가 못 믿어워서 그리고 기다리기가 답답하고 지루해서 그저 무엇이든 어른이 해 주려고 하기가 쉽다. 여기에서 알력이 생기고 어른이 이기면 어린이는 독립적인 인간보다는 의타적인 인간이 되기 쉽다. 네살쯤 되면 어린이는 자아가 상당히 발달하여 자기 주장을 세우고 고집을 피기 일수다. 이런 때 부모가 양보할 줄 모르면 어린이 성격은 비틀어져서 극히 반항적이 되거나 불연이면 아주 개성이 죽은 기백 없는 인간이 될 것이다. 청년기에 이르르면 아이들은 차츰 비밀이 생기고 가족과 떠려져서 잠시 혼자 들어 앉아 무엇인가 꾸물꾸물 하거나 동무하고만 지나치게 사귀게 되거나 하는 수가 있다. 이것도 역시 독립하여 자립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발달과정의 일면이니만치 부모들이 이해있는 눈으로 받아주어야 할 현상이다. 이리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라고 싶을 때 자라고 싶은 만큼 자랄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지를 부모들은 왕왕 지나친 노파심에서 필요이상 제재하고 간섭하고 충돌할 때가 많다. 다만 한가지 부기할 것은 이와 같이 두살때 부터 독립을 갈망하는 어린이들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역시 항상 부모의 후원을 바라고 있음은 사실이니까 이 점을 잊지말고 부모들은 요령껏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궁극의 목적

결국 우리가 어린이를 훈육하려는 궁극의 목적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는 자기자신에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타인과 협조적인 그러한 세계의 시민으로 길러내며 그 양육의 과정에 있어서 부모자녀간에 큰 알력이 없이 서로가 다 행복하게 느끼며 생활할 수 있겠음 해보자는 것인 줄 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저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조목을 엄두에 두고 어린이를 다루어야 함은 물론 이겠지만, 우리는 이 큰 과업을 각 가정에서 단독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의당이 웃과 협력하고 학교·교회·기타 사회기관 등과 협조해야 할 필요성도 느낀다. 또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협력해서 결국 서로 서로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시민들을 양육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이룩해 보자는 것도 우리의 염원의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나 누가 누구에게 늘리는 일도 없고 강요당하는 일도 없이 — 어린이라고 해서 어른에게 부당하게 지배당하는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어른이 여하한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법도 없이 서로가 서로 인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역시 어린이가 어른의 세계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는 힘드니까 어른이 어린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므로서 훈육의 난관을 깨뚫고 어린이 양육의 성

업술 기록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 발달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더욱 절실히 요구 될 것이고 또 구체적인 훈육방법의 여러가지에 대해서도 한층 더 연구적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요, 요망됨은 물론이다. 6·25사변이후 난항을 면치 못하던 우리나라의 아동·학생 훈육문제는 이제 4·19혁명을 겪고 나서 더욱 암초에 부딪치고 있는 감이 적지 않으니 지금이야 말로 사회와 학교와 가정 이 일심 협력하여 이 어린이 훈육문제를 바람직한 올바른 궤도에 올려 놓도록 힘써야 할 때인가 한다. 한가지 다행한 일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식사랑이 지극하여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아끼지 않는 기질이 강했음은 세계 어느나라 여성에게도 지지 않으리만 하였음은 자랄할만 하나 그것이 맹목적인 사랑에서 그치지 말고, 방법

을 갖춘 쓸모있는 사람으로 비약해야 하겠다는 자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갈망하는 바는 이 문체에 있어서의 아버지들의 협력이다. 과거에는 아버지들에게는 엄한 것만이 요구되었고 자식의 징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한국의 아버지였지만 이것만으로 훈육이 성공하기를 바라기는 매우 힘들다. 한국의 새 세대의 아버지들은 모름지기 과거의 낡은 굴림쇠를 용감히 벗어 던지고 잠말로 어린이들의 벗이 되고 보호자가 되며 어머니와 협력적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팀 워커 (Team worker) 가 되어 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이것이 실현되는 날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이 얼마나 양명해지고 우리 사회의 전도가 얼마나 희망에 찰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家政科 專 門 圖 書 紹 介

現代家政學叢書.....修學社 發行

- ① 洋 裁 金 英 玉 著
- ② 家政學概論 金粉玉 李仁喜 金英玉 共著
- ③ 西洋料理 朱 月 榮 著

李 朝 宮 廷 料 理 通 攷

李 惠 卿 黃 慧 星 韓 熙 順 共 著

學 叢 社 發 行